

## 포토보이스 방법을 이용한 M시의 아동친화도시 개념

김정화<sup>1</sup>, 김갑순<sup>2\*</sup>

<sup>1</sup>목포대학교 아동학과, <sup>2</sup>송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 A Study on the Concept of Child-Friendly City in M-City Using Photovoice Method

Jeong-Wha Kim<sup>1</sup>, Kab-Soon Kim<sup>2\*</sup>

<sup>1</sup>Dept. of Child Studies, Mokpo University,  
<sup>2</sup>Dept. of Child Studies, Soongsil Cyber University

**요약**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M시의 아동학과 학생 7명이며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M시의 아동친화적인 모습과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사진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의미를 통해 아동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개념으로 첫째, 아동이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져야 하고 둘째,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시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넷째,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동을 위한 여가놀이 공간과 시설 마련이 아동친화도시의 주요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한다.

**Abstract** It is important for communitie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nd to provide child-friendly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child-friendly cities should hav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even children's department students in city M, and the photovoice research method was used. Scenes that can represent a child-friendly city were photographed, and concepts that a child-friendly city should have were derived according to common meanings in the photo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ept of a child-friendly city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 beautiful city view, a safe environment, a healthy and clean environment, accessibility to various services, and a leisure play environment. Child-friendly cities need to ensure participation by children and respect for their opinions.

**Keywords** : Child-Friendly, Child-Friendly City, Rights of Child, Photovoice, Community

### 1. 서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와 도시의 빈곤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아동을 한 시민으로 여기고 그들의 생활이 즐겁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Kab Soon Kim(Soongsil Cyber Univ.)

email: kks710kr@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6,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20,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유엔은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를 통해 향후 10년 간 성취해야 할 중점과제를 담은 ‘어린이에게 좋은 세상, 또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이란 문서를 채택하였다. 유엔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의 건강한 삶 증진, 양질의 교육 제공, 학대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HIV/AIDS 퇴치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국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엔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유엔아동특별총회는 가장 어린 시민들인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1].

현재 총 196개국 이 비준한(2021년 1월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도시가 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 아동의 참여와 의견의 반영, 국제적인 연대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했고, 각 지역 정부들과 협약을 맺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워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 참여를 포함한 10가지 인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총 77개 지역이며 인증 참여과정 중에 있는 지자체도 36개로 1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3].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부터 아동친화적인 법체제로 조례나 규정을 갖추는 것, 아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동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마련하는 것, 아동의 권리를 지역 내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아동을 위한 기본 예산 확보와 아동권리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의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및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친화도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가 아동친화적인지의 여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절실한 것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공간의 확보와 조성이다. 아동친화적인 개념은 생활과 밀접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친화적인지 인식할 수 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발달특성 상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아동권리 옹호자들의 관점 역시 중요하다[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내에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다루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5]와 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의 적절성을 다루는 연구[6]가 가장 많았다.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로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안전과 건강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7]는 있으나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생활 주거지 환경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친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아동권리 옹호자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동 친화적인지 반대로 아동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리에서 발견되는 아동친화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은 포토보이스 접근방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알아보려 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 주도자형 연구방법이다. 연구에 참여한 자들은 주제에 따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통해 토의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8].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장애 의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는 하나 주로 유니세프 인증 지표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실제 아동이나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실제 지역의 모습이 얼마나 아동의 삶에 적합한지를 파

악하고 그 속에서 아동친화가 갖는 개념을 도출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지방 중소도시인 M시에 있는 M대학교 아동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아동친화도시 탐구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포토보이스 연구의 경우 7-10명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연구참여자 구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9]. 7명의 학생은 M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학과 학생으로서 아동친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M시가 아동친화적인지를 사진 작업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사진 작업과 토의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중요한 의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참여자 주도형의 연구방법론이다[8]. 포토보이스 과정은 일반적으로 준비, 조사, 공유, 실천과 같은 일련의 작업으로 진행된다[10].

본 연구도 포토보이스 연구 단계에 따랐다. 연구목적에 동의한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포토보이스 연구에 대한 안내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료조사,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토론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을 찍은 후에는 사진의 내용에 대한 서술을 직접 기록하고 모든 참여자의 서술 기록 중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제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친화도시의 기준에 대해 토의하고 2020년 9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주 1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M시를 모니터링하면서 아동친화적인 모습과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각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하였다. 7명이 개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모아 각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끼리 분류하고 주제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차 주제선정에서 추출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은 교통, 예술문화, 실생활로 분류되었으나 분류된 사진을 재검토하면서 2차 주제선정을 하여 도시미관,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접근가능성 및 친근성, 안전한 환경, 여가 놀이환경의 4가지 개념으로 재분류하였다. 도출된 주제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추출하고 아동친화적인 모습과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의 대표 사진을 선정하였다.

## 3. 연구결과

포토보이스 연구결과에 따라 최종 도출한 M시의 아동친화 개념은 5가지 범주와 10개의 주제, 20개의 의미로 나누어진다. Table 1에서와 같이 각 사진에서 의미를 찾고 아동친화적인 모습과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모습 속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범주화하였다. 아동친화도시의 5개 범주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안전한 환경,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가능성, 여가놀이 환경이다.

Table 1. Concept of Child-Friendly City

category	concept(friendly/nonfriendly)	subconcept
beautiful city view	various colors and shapes city	interesting design building cute chairs on the street
	old and unmanaged city	old buildings and signboards garbage messing up the city
safe environment	safe facility	overpass connected to school safety traffic fence
	unsafe facilities	driveway just outside the gate objects that impede passage
healthy and clean environment	cleanly managed distance	well cleaned park trash cans on the street
	street occupied by trash	cigarette butts dumped garbage by the school fence
accessibility of various services	convenient place to use	nearby hospitals, pharmacies nearby police box to help us
	inconvenient place to use	children's library too far too high a public washbasin
leisure play environment	sufficient and diverse play space	outdoor playground safe place to play
	scarce and dangerous play space	monotonous play rides Unavailable play area

### 3.1 아름다운 도시미관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심미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양한 색과 모양을 이용하여 디자인된 건물과 거리에 설치된 귀여운 과일모양 의자를 보며 아동친화적이라고 느꼈다(Fig. 1, 2)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물을 만들 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앞 거리에 낡고 노후된 건물이 관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 모습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은(Fig. 3, 4)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 아동의 안전까지도 방해할 수 있어 아동친화적이지 않다.

#### 3.1.1 다양한 색과 모양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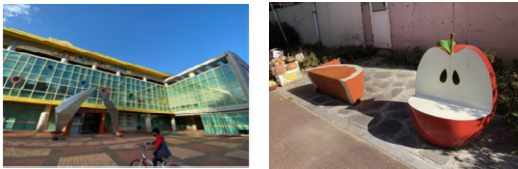


Fig. 1. interesting design Fig. 2. cute chairs on the building street

“어린이도서관을 지었는데 색도 알록달록 예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누가봐도 어린이도서관 같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참여자C)

“길 한쪽 공간에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어서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 봐왔던 의자와는 다른 모양이어서 좋았다. 아동이 좋아할 것 같다.” (참여자G)

#### 3.1.2 낡고 관리되지 않는 도시



Fig. 3. old buildings and Fig. 4. garbage messing up the city signboards

“학교 앞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보기 안좋았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간판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 (참여자E)

“쓰레기를 길가에 쌓아두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습이다.” (참여자B)

### 3.2 안전한 환경

본 연구참여자들은 안전한 환경을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로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설치된 육교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주는 안전펜스를 보며 아동친화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다(Fig. 5, 6).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학교 교문 밖이 바로 도로와 연결되거나 등학교길 보행을 방해하는 적체물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Fig. 7, 8).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집과 학교 주변, 그리고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의 안전이 중요하다. 차량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로망과 안전 장비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아동을 위해 하는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3.2.1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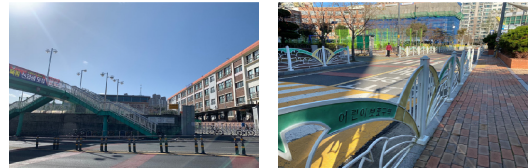


Fig. 5. overpass connected Fig. 6. safety traffic fence to school

“육교가 건너편 학교 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차 길을 건너지 않고도 학교 안까지 안전하게 등학교 할 수 있다.” (참여자A)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길인데, 양쪽 길 모두 어린 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길을 걸을 때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참여자C)

#### 3.2.2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



Fig. 7. driveway just outside the gate

Fig. 8. objects that impede passage

“한 초등학교 앞인데 교문 바로 앞에 인도 구분 없이 도로가 맞닿아 있다. 아동이 뛰어나가기라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다.”(참여자A)

“걸어 다니는 길에 빈 화분과 공사 자재, 쓰레기들이 놓여있어 피해 다녀야 한다. 인도의 적재물을 피하려면 결국 차도로 다니게 되는데 위험하다.”(참여자E)

### 3.3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고 청결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공원 내 쓰레기봉투가 곳곳에 준비된 거리를 보면서 아동친화적이라고 느꼈다(Fig. 9, 10). 모든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이나 공원 등 주로 이용하는 곳에 대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꽂초와 방치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거리는 위생적이지 않다고 하였다(Fig. 11, 12).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동친화적인 도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의 모든 아동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야 한다.

#### 3.3.1 깨끗하게 관리되는 거리



Fig. 9. well cleaned park



Fig. 10. trash cans on the street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공원인데 늘 청소가 잘 되어 있어 항상 깨끗하다. 밟지 퉁굴러도 될 만큼 깨끗해서 좋다고 생각한다.”(참여자F)

“길가에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봉투에 버릴 수 있다. 치우기도 쉽고 주변도 깨끗하다.”(참여자D)

#### 3.3.2 쓰레기가 차지한 거리



Fig. 11. cigarette butts dumped



Fig. 12. garbage by the school fence

“학교 앞 화단인데 담배꽂초가 여러 개 버려져 있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데 꿈초도 바닥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참여자D)

“학교 담장 옆에도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학교 옆인데 어른들이 하나둘씩 버린 쓰레기가 모여 쌓여있다.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이 뻘새나는 길이 되어 버렸다.”(참여자A)

### 3.4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이나 경찰서 등 사회서비스 기관이 집이나 학교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Fig. 13, 14).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교육, 사법제도 등 사회적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기관의 접근이 대도시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도서관이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이용하기 어렵거나 어린이시설인데도 성인에게 맞춘 시설과 설비는 아동이 이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Fig. 15, 16).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데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이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가능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아동이 필요한 기본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3.4.1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



Fig. 13. nearby hospitals, pharmacies



Fig. 14. nearby police box to help us

“초등학교 근처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서 학교에서 다치면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처치도 가능하다.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기도 좋고 약국도 가까워서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참여자F)

“학교주변에 파출소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분들이 항상 아동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기까지 하다.”(참여자B)

### 3.4.2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



Fig. 15. children's library



Fig. 16. too high a public washbasin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모두 집이나 학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린이도서관을 가려면 걸어갈 수도 없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참여자E)

“아동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화장실 세면대는 아동이 사용하기엔 다소 높은 위치에 어른들 기준으로만 설치되어있다. 아동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아동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참여자F)

## 3.5 여가놀이 환경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이 여가시간을 즐기고 놀이할 수 있도록 여가놀이 환경이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 앞 넓은 공터에 마련된 놀이공간과 아동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한 안전한 바닥재를 보며 아동친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Fig. 17, 18). 놀이는 아동의 신체운동 발달부터 사회성, 인지, 정서,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와 여가를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외에서 뛰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이용할 수 없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거나 놀이기구 자체가 위험한 경우도 발견되었다(Fig. 19, 20).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놀 장소의 마련과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고 놀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안전한 놀이기구 및 놀이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5.1 맘껏 뛰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



Fig. 17. outdoor playground Fig. 18. safe place to play

“집 앞에 친구들과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탈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좋아 보인다.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놀다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자B)

“도서관 앞에도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책을 보다가도 밖으로 나오면 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닥 재질도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다칠 위험이 없다.”(참여자C)

### 3.5.2 부족하고 위험한 놀이기구



Fig. 19. monotonous play rides Fig. 20. Unavailable play area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미끄럼틀만 설치되어 있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미끄럼틀의 각도도 심하게 꺾여 있어 위험해 보인다. 좀 더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필요하다.”(참여자D)

“집 앞 공터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운동 기구도 많지만,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참여자B)

## 4. 결론 및 논의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인증 조건을 맞추어 가면서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인증 지표에서 부족한 지역환경에 대한 내용은 실제 그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생활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개념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M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아동의 관점에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아동친화적인 것과 친화적이지 않은 장면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개념으로 첫째, 아동이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져야 하고 둘째,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시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넷째,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동이 여가를 보내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마련이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Malone(2006)은 도시가 교육, 문화, 여가활동, 건강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잘 발달 된 교통체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11]. 그리고 홍승애와 이재연(2013)은 건강환경, 안전 및 보호환경, 교육환경, 놀이 및 여가환경 등 보다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함을[6] 강조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개념을 제외하면 선행연구와의 내용이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M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로 특히 구도심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잘 관리되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하여 아동친화도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M시의 특성상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되었다고 본다. 현재 지자체의 반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의 편차로 각각의 지역들이 갖는 어려움도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친화의 관점에서 지역 간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12].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이 ‘ 좋게’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가 아동 친화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아동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가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예비 아동옹호자로서 최대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 연구를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포토보이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아동의 생활과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이 건강한 성장이 담보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 References

- [1] UNICEF, A World Fit for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02.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first basic plan for children's policy,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i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32569&page=1](http://www.mohw.go.kr/react/i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32569&page=1) (accessed Oct. 1, 2022)
- [3] UNICEF Child Friends Cites Initiative, Available From: <http://childfriendlycities.kr> (accessed Oct. 1, 2022)
- [4] J. Y. Lee, O. K. Hwang, H. J. Kim, "Emerging challenges on the Children's Righ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0, No.6, pp.153-165, 2009.
- [5] M. H. Lee, Y. J. Lee, S. S. Park. A Study on How to Make Korea-friendly Communities in Korea. p.242.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824>
- [6] S. H. Hong, J. Y.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ssessment Tool for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4, No.4, pp.83-104, 2013. DOI: <https://doi.org/10.5723/KJCS.2013.34.4.83>
- [7] W. S. Kim,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2, pp.485-49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2.485>

- [8] D. R. Novak, "Democratizing Qualitative Research: Photovoice and the Social of Huma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 Vol.4, No.4, pp.291-310, 2010.  
DOI: <https://doi.org/10.1080/19312458.2010.527870>
- [9] C. C. Wang, "Youth participation in photovoice as a strategy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14, issue 1-2, pp.147-161, Sep 2006.  
DOI: [https://dx.doi.org/10.1300/J125v14n01\\_09](https://dx.doi.org/10.1300/J125v14n01_09)
- [10] C. C. Wang,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Vol.8, No.2, pp.185-192, 1999.
- [11] K. Malone, United Nations: A Key player in a global movement for child friendly cities, *Creating Child Friendly Cities*, p.208, UK: Routledge, 2006, pp.13-32.
- [12] D. U. Yoo, S. Lee, S. H. Park, "A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hild-friendly City Indicators for Improving Spatial Welfare of Childre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7, No.10, October, 2021.  
DOI: <https://doi.org/10.5659/IAIK.2021.37.10.137>

김 정 화(Jeong-Wha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아동복지 전공)
- 2014년 8월 ~ 2017년 2월 : 서울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 2017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육, 아동권리, 아동복지

김 갑 순(Kab-Soo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
- 서울시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2022년 3월 ~ 현재 : 송실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관심분야>

보육, 유아교육, 다문화교육